

## 극우포퐁리즘이란 누가 지지하며 어떤 정당들인가?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포퐁리즘**은 아주 복합적인 현상이다. 포퐁리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으며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논쟁에서도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기득권에 대한 극단적 비판이다. 기득권 엘리트는 민주주의의 적이며 '인민'은 동지라는 시각이다. 즉, 적(기성 엘리트)과 동지(피플)를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비판의 대상은 기득권이 추구하는 정책이나 그 결과를 포함한다. 기득권 정치가 추구한 신자유주의나 이민정책은 비판의 대상이다. 이민자는 일자리를 빼앗은 경쟁자이며 자신의 소득을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된다. 포퐁리즘의 이러한 극단적 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인 다원주의를 부정한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타협과 공존의 정치를 부정하는 극단적 우익이다.

## 목 차

1. 포퓰리즘은 무엇인가?
2. 누가 극우 포퓰리즘을 지지하는가?
3. 극우 포퓰리즘의 환경
4. 문화적 반동
5. 반세계화와 사회문화적 정치
6. 노동계급의 이탈
7. 포퓰리즘 부상과 정당 체제의 재편?

## 1. 포퓰리즘은 무엇인가?

- ◆ 포퓰리즘은 아주 복합적 현상임. 포퓰리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으며 이는 여전히 진행 중임. 논쟁에서도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함. 즉, 기득권에 대한 극단적 비판임. 기득권 엘리트는 민주주의의 적이며 '인민'은 동지라는 시각임. 즉, 적(기성 엘리트)과 동지(피플)를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것임. 비판의 대상은 기득권이 추구하는 정책이나 그 결과를 포함함. 기득권 정치가 추구한 신자유주의나 이민 정책은 비판의 대상임. 이민자는 일자리를 빼앗은 경쟁자이며 자신의 소득을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됨. 포퓰리즘의 이러한 극단적 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인 다원주의를 부정함. 이런 점에서 그것은 타협과 공존의 정치를 부정하는 극단적 우익임

### 1) 포퓰리즘에 대한 접근방식

- ◆ 포퓰리즘은 두 가지 관점 즉,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동시에 논의될 필요가 있음. 수요적 측면에서 투표자의 정치적·사회적 선호가 존재하는가를 보는 것임. 포퓰리즘에 대한 수요가 강력할 경우 공급은 정치적 기업가의 몫에 해당함.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누가 포퓰리즘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 논의해야 함. 수요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함. 첫째, 경제적 이론은 세계화, 탈산업화, 그리고 기술변화 등 거시적 수준의 변화로 인해 경제적 곤란을 겪는 개인이 폐쇄주의와 권위주의를 선호함. 고용상실과 실업률은 경제적 곤란을 가장 말해주는 징표임
- ◆ 둘째, 문화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은 문화적 반동 가설을 제시함. 이들은 포퓰리즘을 1970년대 신좌파가 제기하여 널리 확산된 다문화주의, 코스모폴리탄주의와 같은 진보적 가치에 대한 반동으로 봄. 우익 포퓰리즘 현상은 유럽 지역에서는 유럽연합에 대한 반동으로 민족주의의 강화와, 다른 지역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거부운동과 결부됨. 포퓰리즘이 제기하는 민족주의적 대안은 유럽연합이나 유엔 등 초국가기구의 중재나 타협을 거부함

### 2) 세 가지 특징

- ◆ 포퓰리즘 문헌은 포퓰리즘이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봄(Guiso, Herrera, Morelli, and Sonno 2017). 첫째, 포퓰리즘 정치엘리트는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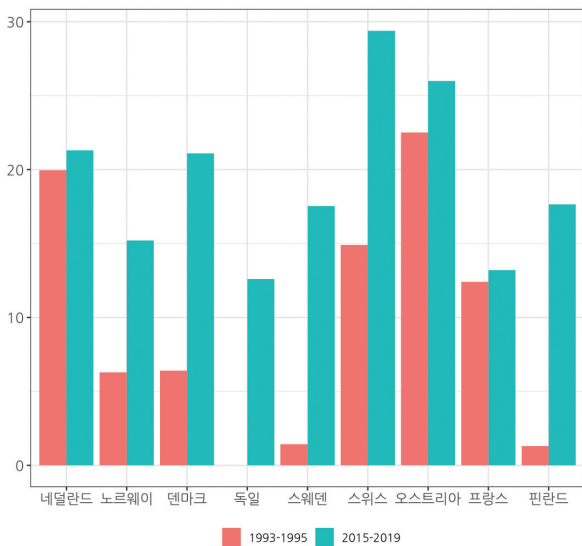
성 엘리트에 대하여 ‘인민’의 편을 강조함. 둘째, ‘인민’이 무엇을 염려하고 어떤 가치를 열망하는가를 강조함. 셋째, 단타주의 즉, 미래에 미치는 효과를 무시함. 포퓰리즘 정치는 장기적 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즉각적으로 보호를 제공하는 정책을 약속하는 정치현상임. 사회적으로 가장 시급한 특정 현안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 함. 이민문제가 가장 긴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에서 이민과 무역자유화의 최대 피해자는 포퓰리즘 정치가 주목하는 대상임. 후자를 향해 포퓰리즘 정당과 지도자는 반이민정책과 수입대체정책을 공약함. 이민제한이나 수입대체화는 민족주의적 담론을 매개로 포장함

## 2. 누가 극우 포퓰리즘을 지지하는가?

- ◆ 최근 10년 동안 극우세력의 정치화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됨 (<그림 1>). 미국의 트럼프 당선, 영국의 브렉시트, 그리고 프랑스의 극우전선 후보 르펜의 대통령 결선진출은 상징적 사건임. 비례선거제도를 채택하는 많은 유럽국가에서 극우정당은 대규모 의회진입에 성공함. 파시즘의 트라우마가 있는 독일에서도 2017년 극우정당(AfD)이 연방의회 진출했음. 이는 전후 처음있는 일로 향후 민주주의 정치지형을 더욱 흔들어 놓을 것으로 예상됨. 좌익 포퓰리즘도 우익 포퓰리즘에 비해 정도는 작지만 새로운 결집을 이루고 있음 (강명세 2019)

최근 10년간 극우세력의  
정치화 폭발적 활성화

<그림 1> 극우 포퓰리즘 지지 증가 (%)



### 세계화와 기술변화는 극우포퐁리즘 성장의 배경

## 3. 극우 포퐁리즘의 환경

- ◆ 세계화와 기술변화는 극우포퐁리즘이 성장하는 환경임. 세계화는 인적 및 물적 교류의 지속적 팽창을 의미하며 이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유발함. 특히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 참여 이후 세계무역은 급팽창했음(〈그림 2〉). 저가형 중국 공산품의 수입으로 유럽 각국의 제조업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고용이 감소됨. 미증유의 시장경쟁은 수혜자와 승자도 만들지만 열패자도 만들어짐. 열패자는 복지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며, 국제경쟁이 가속화하고 자유무역주의는 약화되며 보호주의가 발호함
- ◆ 세계화, 탈산업화, 그리고 기술변화의 압력으로 잠복해 있던 갈등의 이중적 구조가 수면 위로 부상함. 즉, 전통적 좌우 갈등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갈등이 부가된 복합적 갈등구조임. 전통적으로 좌우의 이념적 균열은 복지국가와 재분배정책 라인을 따라 형성됨. 한편 기술변화와 결부된 직업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며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분화가 발생함. 탈산업화가 동반한 복지서비스의 확대로 사회문화부문 일자리가 대폭 증가함. 사회문화전문직은 직무 성격상 전통적 관리직이나 기술전문직이 위계적이라면 보편주의를 선호함. 한편 제조업의 노동계급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비숙련 노동이 증가함. 노동계급의 직무는 성과달성을 목표로 하는 직무 특성상 조직 위계적이며 권위주의적 문화가 지배적임

〈그림 2〉 세계화: GDP 대비 무역 비중 (%), 1970~2020



- ◆ 기술변화는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이에 따라 제조업의 고용은 감소하고 서비스업이 고용을 제공함. 그러나 대부분 수작업을 필요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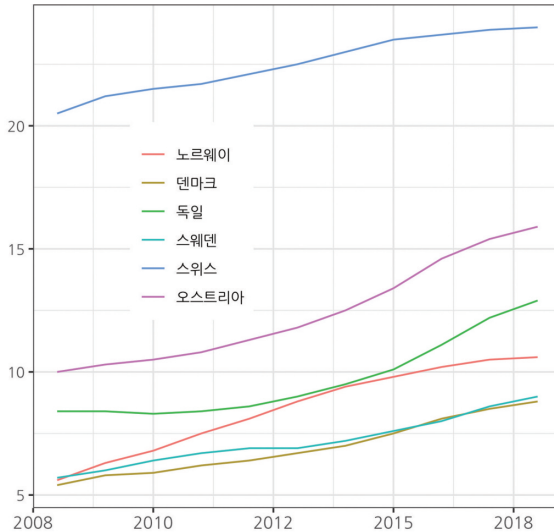
는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낮으며 임금은 낮고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에 봉착함. 한계는 기존 복지국가의 제도적 차이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남 (Oesch 2015). 미국같이 소득불평등이 일반화된 자유주의 복지체제에서는 대량의 그러나 저임의 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며 소득불평등은 더 악화됨. 한편, 스웨덴의 사민주의 복지에서는 정반대로 국가가 공공부문 확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남. 대륙형 복지체제에서는 서비스부문 임금이 전체 평균을 따라 상승하며 필요한 서비스는 가족이 직접 담당하며 따라서 서비스 고용은 증가하지 않음

- ◆ 세계적 변화에 수반된 사회적 변화는 개인적 선호에 영향을 끼침. 변화의 사슬은 1980년대 이후 누적되어 이제는 새로운 길로 이어짐. 새로운 길은 복합적 정치균열을 따라 진행함. 과거 정치균열을 압도했던 경제적 균열은 이제 사회문화적 균열과 공존하며 때로는 충돌하여 전혀 새로운 정치배열을 만들고 있음. 새로운 정치배열 속에서 태어난 포퓰리즘은 전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치적 현상에 해당함. 포퓰리즘의 시간은 전후 체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1980년대에 잉태되었음
- ◆ 탈산업화, 세계화 및 기술변화의 거대한 변화는 계급의 변화에 '조용한 혁명'을 잉태했음. 거대한 변화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계급으로 파급되었음. 기술변화가 낳은 가장 큰 변화는 사회문화전문직 계급의 확대임. 경영관리직 중간계급이 주로 위계적 노동 분야이라면 사회문화 직종은 주로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사회적 태도가 다름. 기술직 또는 관리직 계급은 조직과 기업의 성공을 강조하는 조직논리에 친숙하고 위계적 질서를 수용함. 생산직 노동자는 기술직 전문직과 위계적 관계에 있으나 직업의 특성상 비슷한 문화에 익숙함
- ◆ 한편 컨설팅, 의사, 재활전문가, 교사, 사회 서비스 종사자 등은 고객이나 환자와의 관계를 처리하는 일을 하며 관리직과는 달리 조직적 이해를 우선시 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사회문화 및 서비스 분야의 직업은 자유주의적인 반면, 관리직과 생산직 노동은 권위주의적 직업문화를 가짐. 하위 서비스 노동계급도 동일한 분야에 있는 사회분야전문직처럼 대면적 직업이라는 점에서 생산직 노동계급보다 덜 권위주의적임
- ◆ 새로운 정치지형을 논의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은 이민문제임. 이민노동은 주로 노동수입국의 생산노동계급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후자의 직업안정과 소득을 위협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는 주관적으로 그렇게 인식됨. 세계화는 상품과 서비스뿐 아니라 노동의 이동을 의미하며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해외에서 출생한 인구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그림 3>에서 보듯이 서유럽에서 외국계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기술개발에 따른  
노동계급의 분화로  
새로운 정치배열 등장

있음. 특히 스위스는 20%를 초과했으며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 세 나라에서 전례없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 가장 해외출생 인구가 많은 스위스에서는 최근 27%에 근접함. 스위스에서 기성정당이 포퓰리즘을 수용하여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것은 우연이 아님. 또, 이민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포퓰리즘이 의회에 진입한 것도 우연이 아님

〈그림 3〉 외국계 인구 비중 (%), 2008~2018



이민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은 저숙련 노동에  
집중되어 있어

- ◆ 〈표 1〉은 서유럽 10개국에서 1998-2002년 기간에 시행된 인구조사에서 드러난 이민노동자의 직업분포임. 이민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은 나라를 불문하고 생산노동의 직업군임.<sup>1)</sup> 생산노동은 단순노동과 비숙련 직업을 합한 집단범주에 해당함. 오스트리아 이민노동은 38% 이상이 노동시장의 밑바닥에 해당하는 생산노동자임. 그 다음으로 생산노동이 많은 곳은 독일(34%), 이탈리아(29.9%), 스웨덴(25%) 순임. 생산노동을 서비스노동과 합하면 이민노동자의 직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학력의 전문직 이민은 모든 나라에서 20% 미만에 불과함. 이민노동의 이러한 저숙련노동 편향성은 노동력 수입국 내부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 (Scheve and Slaughter 2001; Malhorta, et. al., 2013). 이들은 수입국의 저숙련 노동과 경쟁하며 일자리를 위협하고 임금상승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인식됨. 수입국의 저숙련 노동이 세계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처럼 일차적으로 경제적 손해 때문임. 한편 전문직 등 인적자원에 기반한 직업은 전문직 수입에도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음. 지식경제가 성장하면서 고학력의 전문직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기 때문임

〈표 1〉 이민노동 직업분포 비율 (%), 1998~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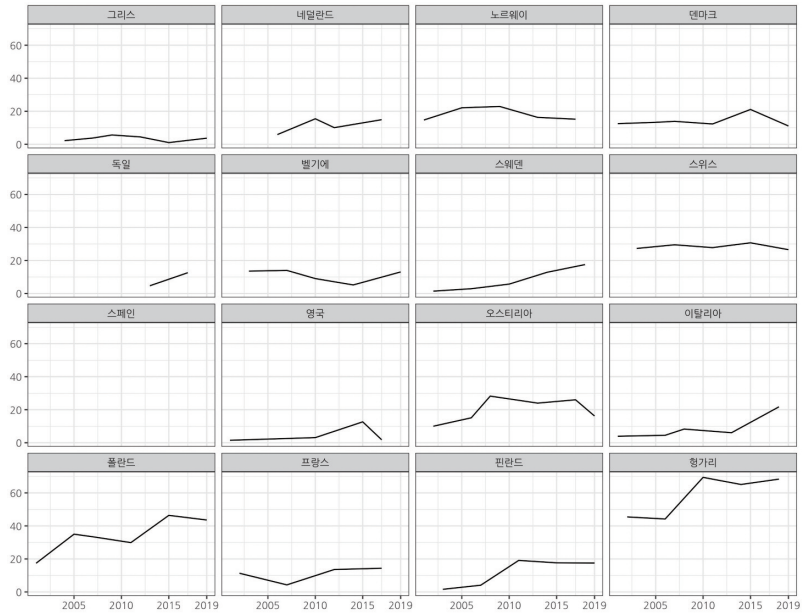
국가	입법행정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농업노동	장인	서비스	생산노동
오스트리아	6.3	6.9	12.3	7.3	0.7	14.2	13.8	38.2
핀란드	2.1	18.2	13.4	5.6	1.7	10.4	18.4	24.0
프랑스	8.9	12.9	13.9	8.3	2.5	18.7	10.6	23.1
독일	1.3	8.9	13.2	7.2	0.6	19.7	14.9	34.0
이탈리아	9.0	8.4	13.7	6.0	1.6	17.1	13.6	29.9
네덜란드	8.1	16.1	14.9	11.5	1.4	9.9	11.4	22.3
노르웨이	6.8	14.0	18.8	7.1	1.1	9.5	21.7	20.7
스웨덴	3.0	13.9	11.5	7.3	0.4	7.3	20.5	25.0
스위스	6.0	8.6	10.6	6.7	0.7	10.4	11.1	9.3
영국	16.3	17.7	13.0	12.8	0.4	5.4	16.3	17.3

자료: stats.oecd.org, 2000 인구조사기반

2000년 이후 극우  
포퐁리즘 정당들이  
각국 의회 내에서  
급격히 성장해

- ◆ 〈그림 4〉는 서유럽 16개국의 최근 20년의 새로운 정치지형도임. 2000년 이후 극우 포퐁리즘 정당이 주요 의회선거에서 얼마나 선전했는가를 보여줌. 헝가리처럼 예외적으로 급성장한 경우를 제외해도 극우정당의 신장세는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음. 서유럽 전반적으로 극우 포퐁리즘 정당이 선전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서 몇 가지 두드러짐을 볼 수 있음. 첫째, 극우 포퐁리즘 정당이 전통적 사회당 강세지역에서 괄목할만한 득표율을 기록하는 점임. 특히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사회주의 계열정당이 오래 집권해왔던 복지국가에서도 극우정당이 급성장한다는 점이 눈길을 잡음. 둘째, 나치즘 트라우마가 포퐁리즘 재현을 가로막았던 독일에서마저 2017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AfD)은 일거에 12.4%의 득표력을 과시하며 총 709석 중 94석을 차지했음. 노동계급의 정당이 강고한 것으로 유명한 북유럽에서도 노동계급 일부가 포퐁리즘 정치를 지지함. 이들은 세계화와 기술변화의 충격에 무방비 상태였던 저숙련 저학력의 노동계급으로서 경제적 고통을 가장 뼈저리게 경험하며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소득감소를 체험하고 있음. 셋째, 탈공산화 국가에서 극우 포퐁리즘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 시장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의 후유증이 나타난다는 증좌임. 경험하지 못했던 무한경쟁의 압력에 동구 투표자의 반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림 4〉 유럽의 포퓰리즘 정당 득표율 (%), 2000~2018



#### 4. 문화적 반동

경제적 불만은  
포퓰리즘 정치  
발생의 필요조건

- ◆ 거대한 변화는 문화적 균열을 잉태하며 문화적 균열은 새로운 직업과 계급을 통해 나타남. 사회구성의 변화로 생겨난 새로운 직업과 계급의 등장은 과거 육체노동의 노동자와 정신노동의 화이트 칼라 층의 이분법적 계급분류를 무용지물화시킴. ‘조용한 혁명’은 산업화에서 탈산업화 사회로 이행하면서 일어났음. 경제성장으로 생존의 불안이 사라지면서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들에 대한 경계 또한 사라지고, 외부자나 다름에 대해 관대해짐. 기술변화가 산아제한을 가능하게 하자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성평등은 실현될 수 있었음. 나라마다 사회적 조건에 따라 정도와 속도는 다르지만 문화적 보편성은 실현됨. 문화적 가치는 “근대화의 추진력과 전통의 지속적 영향력 사이의 균형”을 의미함 (Inglehart 2018, 11)
- ◆ 경제적 불만은 포퓰리즘 정치가 생겨나는 데 필요한 일차적 조건임. 세계화 등 시장경제의 심화가 지속되면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집단이 우선적 피해자가 되며 이들은 이민노동과 경쟁해야 하며 수입침투로 인한 고용위협을 마주 해야 함. 이들은 경제적 이유에서 반이민적 태도를 품게

됨 (Scheve and Slaughter 2001). 신자유주의의 열패자는 이들보다 상위의 노동계급에게도 심리적 불안을 줌. 잠재적 실업과 소득감소를 우려하여 포퐁리즘 정당의 지지에 합류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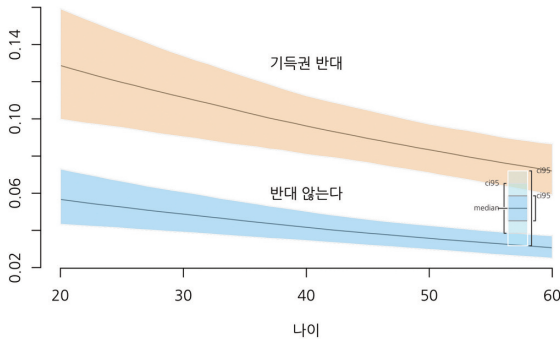
- ◆ 일자리 감소와 이민인구의 증가로 세계화 또는 유럽연합에 대한 반감이 증가함.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는 중국산 공산품 수입에 대해 보복관세를 공약했던 트럼프를 지지했음. 영국의 노동계급 또는 노인층은 유럽연합 탈퇴에 찬성함. 프랑스 노동계급은 유럽연합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전선의 르펜을 지지했음

1) 반엘리트주의: ‘엘리트는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다’

- ◆ 포퐁리즘을 정의하는 핵심 기준의 하나는 반기득권 성격임. 포퐁리즘은 엘리트중심주의에 대한 반대운동임. 트럼프는 워싱턴 기득권을 비판하고 보통사람을 위한 정치를 공약했음. 브렉시트를 주도했던 영국의 보리스 존슨은 브뤼셀의 결정을 런던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엘리트주의에 동조하는 사람은 10.7%가 포퐁리즘 정당을 지지했다면 동조하지 않는 이의 4.25%가 지지했음 (<그림 5>)

포퐁리즘은  
엘리트중심주의에 대한  
반대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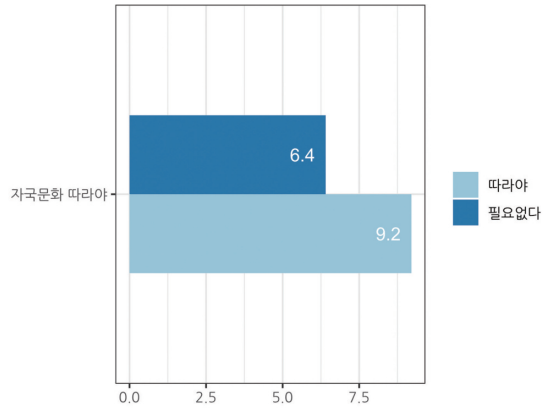
<그림 5> 기득권 엘리트 반대와 포퐁리즘 지지 확률



2) 이민자는 “우리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야 한다”

- ◆ 문화적 반작용은 우선 이민자에 대한 혐오로 나타남. 포퐁리즘은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에서 드러남. 포퐁리즘 정당은 이를 이용해 이민자 혐오증을 부추겨 지지를 얻으려 함. Pew Research Center는 포퐁리즘과 관련하여 공적 여론조사를 실시했음. 그 결과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민자가 자국 문화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그림 6〉 ‘이민자는 자국문화와 전통 따라야 한다’와 포퓰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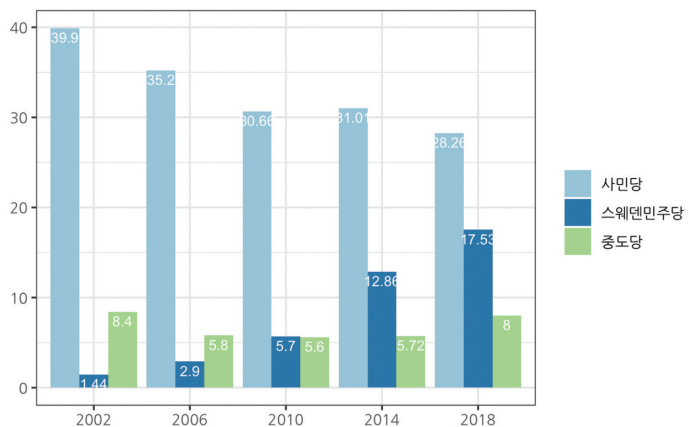


**포퓰리즘은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분노에 기반해**

**3) 복지쇼비니즘: 이민자는 자국경제에 부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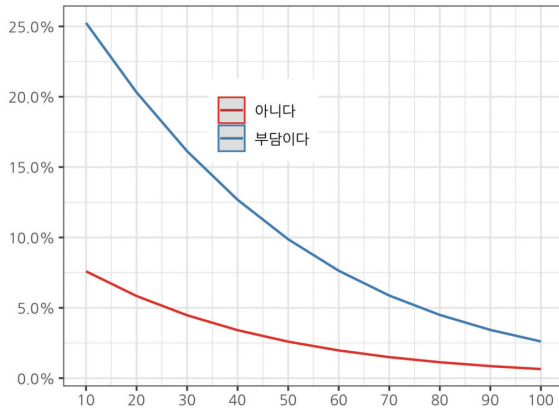
- ◆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자국경제에 부담이 되고 자신들의 세금으로 구축한 복지체제를 편승하여 복지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여론이 등장함. 자국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믿는 투표자의 11.2%,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 가운데 6.9%가 지난 총선에서 포퓰리즘 정당을 지지했음. 독일의 경우 자국경제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6.06%가 독일 포퓰리즘 정당 대안당을 지지한 반면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1.7%만이 대안당을 지지했음. 불과 2009년 총선까지 진입하지 못했던 포퓰리즘 정당 대안당(AfD)은 2013년 선거에서 처음으로 연방의회에 입성하고 2017년에는 12% 이상의 득표를 기록하고 총 709석에서 94석을 차지했음
- ◆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스웨덴 포퓰리즘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SD)이 최근에 기록한 성과임

〈그림 7〉 스웨덴 주요 정당 득표율 (%), 2002~2018



- ◆ 전후 가장 오랫동안 단독 또는 연합으로 집권했던 사민당의 득표율이 하락하는 대신 포퐁리즘의 스웨덴 민주당 득표율이 증가하여 이제는 전통적 우파정당을 압도하여 제2당의 위상을 차지함. 이렇게 높은 지지를 짧은 시간에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잠재적 지지층이 존재하기 때문임. 스웨덴에서 이민자가 국가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즉 복지소비니즘에 동의하는 투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그림8>에서 보듯, 이민자가 스웨덴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개인이 스웨덴 민주당을 지지하는 데 큰 격차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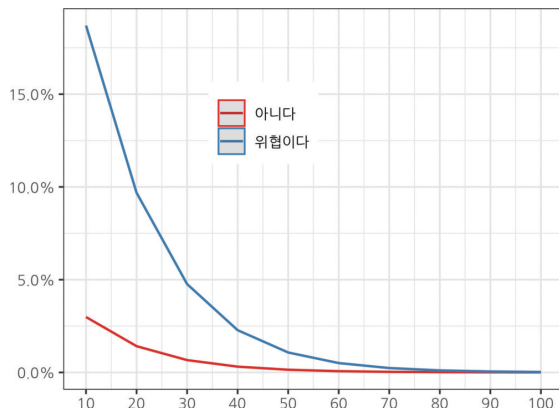
<그림 8> 이민자 문제와 스웨덴 민주당 지지



#### 4) 이민자는 테러위험을 높인다

- ◆ 과거 10년 동안 중동 불안의 급증으로 중동난민이 유입되면서 유럽의 테러발생이 증가하였음. 이민자 유입이 자국의 테러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인식이 늘고 이는 다시 포퐁리즘 정당의 지지로 연결됨 (<그림 9>). 테러위험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가운데 11.1%,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 응답자의 6.63%가 포퐁리즘 정당을 지지했음

<그림 9> 이민자 테러위험 인식과 독일 극우정당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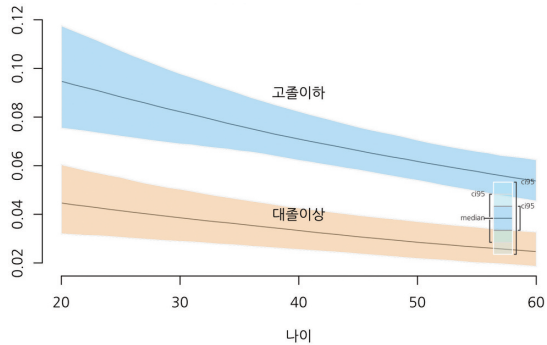
이민자 유입이  
테러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인식이 포퐁리즘  
정당 지지로 연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포퓰리즘에 대한  
지지 높아**

**5) 비 고학력자가 지지한다**

- ◆ 대졸 이상의 학력자는 고졸 이하의 개인에 비해 포퓰리즘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식을 전수하는 동시에 정보처리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를 더 정확하게 비교해 판단할 수 있음 (<그림 10>)

<그림 10> 교육수준별 포퓰리즘 지지, 2018년 기준



**5. 반세계화와 사회문화적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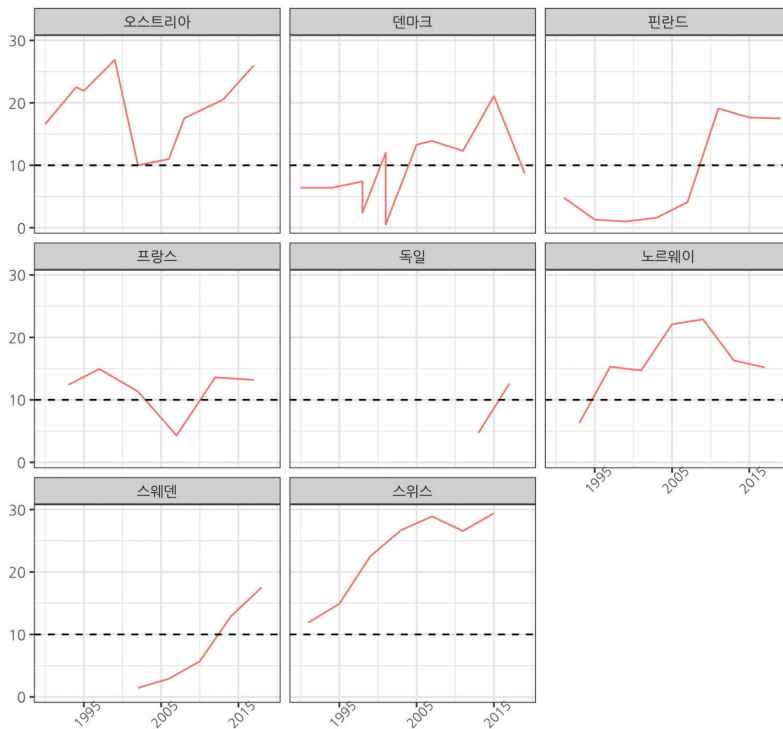
- ◆ 우익 포퓰리즘 정당은 이민자, 여성 및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에 대한 억제정책을 지지함으로써 지지층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다문화주의를 반대하고 권위주의 태도를 지지함. 한편 세계화와 탈산업화의 패자인 노동자 비정규직의 지지를 얻으려고 복지 등 재분배에 대해서는 기존의 완강한 반대에서 후퇴함
- ◆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유럽통합과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열패자 집단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음. 열패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브렉시트, 트럼프, 그리고 프랑스 극우전선 등을 통해 드러남. 경제적 이익의 손실은 문화적 상실감을 초래했음.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화, 특히 이민노동이나 난민의 갑작스런 증가는 민주주의의 투표자-정당 관계에 일대 변화를 가져옴. 외부자와 그들이 가져온 생활양식에 대한 적대감이 발생함. '우리' 집단이 결속하여 '그들'의 침입을 통제해야 된다고 믿는 정체성의 정치가 등장함
- ◆ 포퓰리즘의 선거성공은 일차적으로 노동계급의 지지에 있음. 포퓰리즘과 노동계급의 역설적인 '역사적' 결합은 두 가지 요인이 변하지 않는 한 지

속될 것으로 예상됨. 첫째, 노동계급이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계급으로부터 '민족'으로 이동하게 만든 사회경제적 압력이 좀처럼 바뀌지 않을 것임. 둘째, 노동계급이 과거 지지했던 진보정당이 노동계급이 필요로 하는 보호정책을 제공하지 않는 한 노동과 사회당의 전통적 결합의 복원은 불가능할 것임

- ◆ 우익 포퓰리즘 정당이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는 전략적 태도는 정강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11>에서 보듯, 극우 포퓰리즘 정당은 2010년대 후반 최근 선거에서 지지세를 확산하는 데 성공하고 있음

**세계화와 탈산업화의  
열매자를 위한  
기존 정당들의  
정책 대안 없을 경우,  
극우 포퓰리즘 현상  
장기화 우려**

<그림 11> 포퓰리즘 총선 득표율 (%), 1990~2019



<http://www.parlgov.org/>

## 6. 노동계급의 이탈

- ◆ 노동계급이 전통적 지지정당인 사회당 또는 시민당에서 이탈하여 포퓰리즘 정당으로 이동하고 있음 (<표 2>). 2010~2018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2010년 시민당 지지는 40%에서 2017년 31%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포퓰리즘 정당 지지는 20.3%에서 23.7%로 증가했음. 시민당은 반대로 전

**좌파정당을 지지하던  
노동집단이 극우정당  
지지 세력으로 이동해**

문직의 정당이 되었음. 전문직 계급은 사민당에 대해 지속적으로 20%대의 지지를 보내고 있음

〈표 2〉 노동계급의 우익 포퓰리즘 정당 지지 현황 (%)

년도	정당	비숙련 노동	전문직
2010	포퓰리즘	20.3	9.6
2013	포퓰리즘	15.3	10.3
2017	포퓰리즘	23.7	8.4
2010	사민당	40.0	29.0
2013	사민당	31.1	24.8
2017	사민당	31.7	24.2

자료: ISSP 2013, 2018

- ◆ 계급구성의 변화는 정치균열에 영향을 줌. 정치균열은 전통적으로 물질 이해를 중심으로 한 단일한 균열과 더불어 보편주의-특수주의 차이에 기반한 문화적 균열이 지배적이었음. 물질 이해는 복지국가의 확대를 놓고 서로 대립해왔음. 조세 없이 복지는 불가능한 것이며 재분배와 사회적 보험은 침해한 경제적 이해의 갈등의 축을 형성했음
- ◆ 피켓티(Piketty 2018)는 프랑스, 미국 및 영국을 대상으로 100년의 여론 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30년의 '교육혁명'이 계급정치를 바꾸어 놓았다고 보았음. 엘리트집단 간 노동분업이 발생하여 지적 직업에 만족하는 브라만 엘리트와 자본축적을 추구하는 경영 엘리트의 분화를 말함. 피켓티의 주장은 새로운 것은 아님. 신중간계급의 좌경화 현상을 세계화의 보편적 논리에 기초해서 설명하려는 피켓티와는 다른 각도에서 직업구조의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도 비슷한 주장을 제시했음. 직업구조의 변화는 계급의 변화를 유발하고 계급의 변화는 정치균열의 일대 변화를 만들었다는 가설임. 피켓티의 연구가 최신의 현상을 포함하지만 주로 장기적인 추세에 주목한다면 계급연구는 최근 10여년 기간에 일어난 현상을 기반으로 함

## 7. 포퓰리즘 부상과 정당체제의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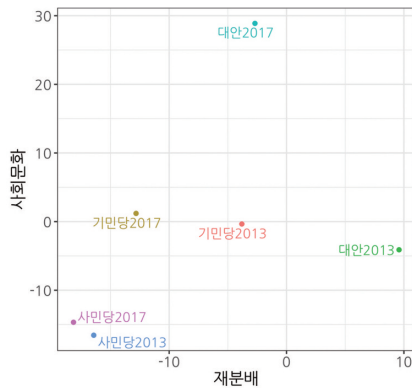
- ◆ 거대하지만 조용한 변화는 수십 년을 경과한 후 정치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낳았음.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물밑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왔

던 거대한 변화의 귀결이었음. 트럼프 시대는 소위 제1의 갈등을 제치고 제2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나타난 정치재편입(Kitschelt and Rehm 2019). 문화적 균열은 국가의 경제적 개입과 관련된 영역을 제외한 영역 즉, 법과 질서, 개인적 권리, 성평등, 다문화 등 광범한 부분을 포괄하는 차원임

- ◆ 계급분화와 사회적 선호가 결합하여 정당배열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줌. 정당배열의 변화는 좌우 모두에게 일어남 (Kitschelt 1994; 1995). 계급이 세분화되고 계급간 이해가 경제적 및 문화적 차원에서 엇갈리기 때문에 과거처럼 단순히 노동 대 자본 또는 좌우 갈등으로 도식화할 수 없음. 중간계급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직무형태에 따라 경영관리, 기술, 그리고 사회문화적 분야에 분화되었음

**계급분화와  
사회적 선호가 결합해  
정당배열 구도에  
큰 영향**

〈그림 12〉 독일 정당체제 변화, 2013~2017



- ◆ 〈그림 12〉는 독일 정당체제의 변화를 보여줌. 기민당, 시민당 및 대안당이 3당 체제를 형성하는 모습임. 진보, 보수, 포퐁리즘 정당의 정강정책에서 제1균열을 대표하는 복지확대(수직축)와 제2균열을 대표하는 다문화주의(수평축)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줌. 대안당은 재분배 측면에서는 시장주의를 완화하고 문화적 차원에서는 더욱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변화를 보임. 다문화주의는 이민문제를 표현하는 것으로 포퐁리즘이나 극우정당이 전략적으로 동원하려는 쟁점임. 한편 복지확대는 경제적 균열의 핵심으로서 전통적으로 우파 정당이 반대해 온 정책을 대표함. 포퐁리즘은 정당은 다문화주의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지만 복지확대에 대해서는 기성 우파정당과는 다른 입장을 보임. 포퐁리즘은 생산직 노동계급을 의식한 선거전략으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및 영국의 포퐁리즘 정당은 복지국수주의 정책을 제시함

참고문헌

- 강명세 2019. 불평등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바오.
- Guiso, Luigi, Herrera, Helios, Morelli, Massimo, and Tommano Sonno 2017. "Populism: Demand and Supply." CEPR working paper No. DP1871, 2018.
- Inglehart, Ronald. 2018, Cultural Evol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tschelt, Herbert 1994.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tschelt, Herbert, and Philip Rehm 2019. "Secular Partisan Realignment in the United States: The Socioeconomic Reconfiguration of White Partisan Support since the New Deal Era." Politics and Society volume 47. no. 3.
- Piketty, Thomas. 2018. "Brahmin Left vs. Merchant Right: Rising Inequality & the Changing Structure of Political Conflict." WID world working paper series. 2018.
- Pew Research Center 2018. Spring 2018 Survey Data. Scheve, Kenneth F., and Matthew J. Slaughter 2001; Malhorta, et. al., 2013

주 석

- 1) 1998-2002년 기간의 인구센서스는 이민 등을 관찰할 수 있는 현재 접근 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이다.

❖ 저자 약력

■ 강명세

現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치경제 전공. UCL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Ph.D.)를 취득 하였음. 저서로는 『복지국가 재분배 및 민주주의』(2014), 『불평등 민주주의와 포퐁리즘』 (2019)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손정욱(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한유진(제주평화연구원 연구조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mailto: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